

* 참고 도서 *

H. J. Laski : *The Apotheosis of the State*, The New Republic, VIII (July 22, 1966)
 _____ : *Authority in the Modern State*, New Hawen : Yale university press, 1919
 London :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9
 _____ : *A Grammar of Polities*,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25 : 2nd,ed., 1930
 _____ : *Liber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 Harper and Bros., 1930 : London
 Hawkins, Carroll & Harold J. Laski : *A Preliminary Analysi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LXV (Sep., 1950)
 勁草書房 : ハロルド・ラスキ研究 (政治學 研究叢書 1), 1954年
 關 嘉 彦 : 現代國家にあける 自由と革命, 春秋社, 1952年
 澁 谷 武 : ラスキの政治理論, 弘文堂, 1960年
 原 田 鋼 : 政治學 原論, 朝倉書店, 1967年
 横 越 英一 : 政治學體系, 勁草書房, 1967年

中國 天思想 小考

- 그 人格性을 中心으로 -

박 성 기

◇ 目 次 ◇

1. 序 論
2. 中國思想의 一般的 傾向
3. 天思想의 形成
4. 天思想의 變遷
5. 結 論

1. 序 論

中國 古典에 無數히 言及되는 天,¹⁾ 天命,²⁾ 或은 神,³⁾ 上帝,⁴⁾ 等은 中國人들이 漠然하게나마 天을 神으로 崇拜하고 信仰하였음을 말해 준다.

하늘을 順從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은 亡한다.⁵⁾ 사람들이 소리를 낮추어 사사로이 하는 말(人間私語)이라도 하늘이 들을 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안에

1) 中庸 道論

受祿于天 保佑命之 自天申之 故大德者 必受命(天命)
 書經 虞書 皋陶謨
 天工人其代之 天敍有典……
 天秩有禮 自我五禮
 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五用哉

4) 書經 虞書 益稷

以昭受上帝 天其申命用休

5) 孟子 離婁章句上七

孟子曰 天下有德 小德役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道 小役大 弱役強 斯二者天也 順天者存 逆天者亡

2) 中庸 天人論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 孟子 盡心章句 上二

孟子曰 莫非命也 順受其正

3) 書經 商書 湯告

將天命明威 不敢赦 敢用玄牡

敢昭告于上天神后 請罪有夏……

서 제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도 神의 눈은 번개와 같이 이를 본다.⁶⁾

種瓜得瓜하고 種豆得豆하나니 하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영성한 듯하지만 하늘은 罪人을 결코 새어나가게는 하지 않는다, (不漏)⁷⁾ 惡이 두레박(惡罐)에 찰 때는 하늘이 반드시 이를 베인다.⁸⁾ 등의 글귀는 흔히들 講壇에서도 인용이 되며 東洋의 直觀의인 經驗哲學이 하나님을 바로 찾은 것 같은 印象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글귀에 나타난 中國人의 天神觀念은 어디까지나 一般恩寵領域에서 하나님의 攝理와 하나님이 直接間接으로 人類歷史에 關與하고 제심을 直觀으로 觀察하여 얻은 것이지 聖經이 말하는 하나님의 自己啓示를 通하여 얻어진 것과 같은 分명한 知識은 아니다.

그러므로 數千年동안 儒佛仙에 依하여 培養된 土壤 속에서 태어나 基督教에 歸依한 우리로서 東洋의 天思想을 바로 理解한다는 것은 聖經에 啓示된 하나님을 바로 찾는데 도움이 됨으로 이를 概觀하고자 한다.

2. 中國思想의 一般的 傾向

中國思想 或은 文化의 一般的인 特徵을 살펴볼 때 大體的으로 直觀을 重視하고 論理的인 思考나 分析을 回避하는 傾向을 엿볼 수 있으며 그 思想의 一般的인 흐름이 現世的이고 唯物的인 旨을 짙게 나타낸다.

馮友蘭⁹⁾은 어떤 哲人이 宋代理學에 關해서 「日常의 平凡한 生活을 하면서도 곧장 先天의 순수한 경지에 到達한다」라고 한 말을 引用하여 中國哲學이 追求하고 있는 精神이 出世間的인 旨을 壅塞하게 辯護하려고 하였지만 中國哲學의 諸學派가 모두 直接間接으로 그 關心을 政治와 倫理에 두고 있으며 宇宙가 아닌 社會에 天堂 地獄이 아닌 人倫, 日常事에, 來世가 아닌 現生에 關心을 두고 있는 世間的인 哲學임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런 意味에서 中國思想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儒教는 宗教라기보다 政治 道德을 論하는 가르침(教)이라는 見解를 널리 갖게 해준다.

孔子는 君子를 論하면서 不知(天)命이면 無以爲君子¹⁰⁾ 라고 하여 天命을 말하였고 五十而知天命¹¹⁾ 이라 하여 하늘의 命을 알았다고 하였지만 같은 論語에 子不語怪力亂神이라 하였고¹²⁾ 또

6) 明心寶鑑 天命編
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7) 老子 七十三章
天網恢恢 疎而不失(漏)

8) 莊子
若人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戮之
明心寶鑑 天命篇
惡罐若滿 天必誅之

9) 中國哲學史 馮友蘭著 鄭仁在譯 p.32

10) 論語 堯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11) 論語 爲政
子曰 吾十有五 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12) 論語 述而
子不語 怪力亂神

子貢은 「孔子는 人間의 本性和 하늘의 理致를 말함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¹³⁾ 하여 孔子의 形而上學的인 斷面을 說明하였다. 한번은 季路가 鬼神 섬김을 물었을 때 孔子는 「산 사람도 能히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鬼神을 섬기리오」하였으며 다시 물기를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孔子는 「아직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리오¹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孔子의 關心은 오로지 現實의 人生이 어떻게 바로 살아가느냐에 있었지 神의 世界나 死後의 世界등 宗教的인 問題나 思辨的이고 論證的인 形而上學世界에 대해서는 極히 冷淡하였다. 흔히들 「朝聞道이면 夕死라도 可하다」¹⁵⁾ 라는 말을 引用하여 孔子의 出世間的인 趣向을 強調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道도 山井湧氏는 어디까지나 現世에서의 사람이 살아갈 길을 摸索하고 그 實踐方法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음을 指摘하였다.¹⁶⁾

中國思想이 이렇게 現世的인 傾向을 띠게 된 理由는 무엇일까? 여러가지로 그 理由를 들 수 있겠지만 그 源泉의인 理由는 中國思想과 文化를 獨占하다시피한 主役들이 다름 아닌 政治家이자 官吏인 士大夫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奏의 始皇帝가 天下를 統一한 後 創設한 官僚政治의 制度가 그 後 前漢의 武帝에 依하여 一層 整備되어 最後清朝의 滅亡에 이르기까지 長長 二千年동안 維持되어 왔다. 그리고 이 긴 歲月동안 中國文化는 體制上 自然히 官吏인 士大夫에 依하여 形成되고 獨占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거니와 이 官吏의 選任이 法律知識이나 行政官吏의 能力이나 技術을 根據로 한 것이 아니고 儒學이나 文學의 修得을 條件으로 한 科擧考試에 依한 것이며 優秀한 文章力이나 作詩의 能力을 가진 者를 바로 官吏로 任命하였다.

이리하여 文化를 担当하는 中國의 知識人 或은 文化人은 다름 아닌 가장 現實的이고 世俗的인 政治人이요 官吏였던 것이며 따라서 中國人의 思想構造나 文化의 傾向은 必然的으로 現實的이고 世間的인 旨을 免할 수 없었다.

戰國時代 諸子百家中 政治의 領域을 떠나 永遠한 人生問題를 論하려던 老莊이나 愛族이나 愛國을 超越한 博愛를 論한 墨子같은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大部分은 政治에 直接 干與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政治諮問을 業으로 하는 인테리 浪人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中國文化가 官吏들과 孔孟을 爲始한 政治 곤살탄트들에 依해 形成 維持되었다는 事實은 그 文化와 思想이 體質的으로 現世的인 일 수 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¹⁷⁾

13) 論語 公治長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 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14) 論語 先進
季路問 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

15) 論語 里仁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16) 東洋思想 二卷 山井 湧著 p.82

17) 中國思想史 上卷 森 三樹三郎著 p.12~25參照

하면서 聖經을 그 主要 參考文獻으로 引用하였다.²⁵⁾

그런데 MeeK는 거듭거듭 言及되는 여호와와의 自己啓示事實을 성경에서 引用하면서 그것을 또 度外視하는 큰 過誤를 犯하였다. 그는 창 35:2에 나오는 야곱이 家族들에 異邦神像을 버리고 淨潔케 하라」는 記錄과 여호수아 24:2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異邦神을 섬기는 데서 불러내셨다」는 記錄을 들어 히브리 宗教가 邪神教이며 多神宗教임을 聖經이 分明히 主張한다고 하였다. 얼마나 無識한 妄言인지 모른다. 히브리 大衆이 自然에 對한 畏敬의 念을 表示하는 것은 (시 19:1.2. 행 14:17 롬 1:21) 自然啓示를 통해 하나님의 存在를 感知하던 일로 当然한 일이고, 그들이 아무리 選民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人間으로서 啓示된 하나님의 戒律을 어기고 精靈 邪神이나 自然物을 崇拜하는 誤謬를 犯한 일은 許多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先知들을 通하여 自身의 뜻을 繼續적으로 啓示하시고 히브리 民族이 選民으로서 啓示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強勸하신 것이다.

MeeK 自身이 이 事實을 指摘하면서 히브리 宗教의 啓示起源說을 否認하려고 함은 常識에도 벗어난 自家瞳着이다.

(…… despite the effort of priests and prophets to eradicate them, …… it was to Moses that God first made himself known as Yahweh, …… Ex 6:3, Where Yahweh says to Moses, “I am Yahweh……) ²⁶⁾

이렇게 發源된 히브리神觀에 비해 中國 上古의 神觀念은 그것이 비록 人格的인 絕對者요.²⁷⁾ 天地萬物을 主宰하며 絕對的인 權威를 가지고 下界를 攝理하며 人間의 禍福을 掌理하며 善을 賞주고 惡을 罰하는 至上神으로 崇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然 或은 自然現象等 未知의 實力者에 對한 推象의이며 觀念的인 推理에서 온 人爲的인 神觀인 것이다. 따라서 그 概念이 漠然하고 具體性이 없어 歲月을 따라 變質하게 되었고 마침내 諸子百家時代에 이르러서는 그 人格性을 剝奪 당하고 만 것이다.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古代中國인들이 그들의 天帝를 人格神으로 認識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神과 사람 사이에 人格的인 關係나 사랑關係가 成立되었거나 維持되었다는 記錄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巫祝들이 神人사이의 仲裁를 한다는 記錄도 있고 神人이 合一된다는 汎神論的인 記錄은 있어도 基督教에서 말하는 神人間의 父子關係라든가 어떤 人格的인 關係를 表示한 記錄이 없음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古代中國인들이 말하는 天帝의 人格性은 히브리인들의 神觀과는 전혀 다른 意味를 가지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의 Yahweh 神은 元來 人格的 存在로 先在하여 그의 意志를 能動的으로 人間에게

25) T. J. Meek Hebrew Origin p.82~118

26) The (Hebrew) religion was polydaemonic and polytheistic, so the Old Testament itself explicitly affirms (Josh. 24:2, Gen. 35:2)

27) 中庸(解義) 玄岩社, p. 131

啓示함으로써 人間과 神 사이에 人格的 對話가 이뤄지고 「當身과 나」라는 獨立된 人格과 人格 사이의 사랑의 만남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古代中國인들이 말하는 天帝의 人格性은 단지 어떤 未知의 超越的 힘이나 抽象的이며 觀念的인 原理에다가 人間의 形像(image)을 입힘으로써 擬人化한 神이었기 때문에 本來的 意味로서의 人格神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古代中國인들이 말하는 天帝의 人格性은 天帝 自身의 人格이 아니고 人間들이 賦與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天思想의 變遷

上述한 바와 같이 自然發生的으로 始源된 古代中國의 神觀이 人格을 賦與받은 天帝에까지 發展되었지만 歲月의 흐름에 따라 도리어 後進하여 漸次的으로 그 人格神的인 要素를 傷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春秋戰國時代를 거쳐 12世紀 新儒에 이르러서는 中國 古代의 天神은 完全히 變質되어 「神이 아닌 神」即 萬有의 法則으로 轉落해 버렸다.

히브리民族의 境遇는 어떤 指導者의 創意的인 思考나 思想家들의 思惟의 結果에 依하여 神의 位置가 確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自己自身을 繼續적으로 啓示하였으며 士師와 先知를 통해 自身의 뜻을 人間에게 傳達함으로써 히브리인의 神觀이 定立 持續되어 나갔다. 따라서 外部에서 流入되는 他宗教나 異質的인 思潮가 繼續的인 威脅을 加해 오고 變遷되는 社會環境과 人知啓發에 依한 生活改善으로 因한 周辺狀況의 變革에도 不拘하고 그 神觀에는 變遷이 없었다.

그러나 中國의 境遇는 그렇지 못했다. 그 神觀의 發源과 形成이 어디까지나 人爲的이었기 때문에 時代의 흐름과 人間의 思惟의 發達에 따라 그 神觀이 變할 수 밖에 없었다. 森三樹三郎에 依하면 歲月이 흘러 社會秩序가 安定되어감에 따라 天神이 活動할 수 있는 機會가 減少되고 따라서 中國인의 腦裏에서 天神의 人格的인 要素가 漸漸 희미해져 갔다고 한다.²⁸⁾ 勿論 一理 있는 論理다. 그러나 中國인의 神觀의 變貌는 그보다 前述한 바와 같이 作爲的인 神觀이기 때문에 偉大한 思想家나 指導者가 나와 새로운 思想體制를 갖출 때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된 神觀의 變質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孔孟의 出現과 함께 일어나게 된 中國神觀의 本質的인 變化인 것이다.

原來 思辨的이 못 되고 感覺을 超越한 形而上學的인 世界에 대해 興味를 못 가지는 中國人の 先天的인 性癖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儒家의 大本을 이룬 孔孟의 出現으로 中國의 天思想은 획기적인 變化를 가져오게 됐다.

위에서 말한 대로 自然發生的으로 생겨난 上古 原始社會의 拜天思想은 殷代에 와서 諸族神을 統括하며 人事自然을 共히 掌理하는 至高神으로 發展하였으나 孔孟을 爲始한 諸子百家가

28) 中國思想史上 森三樹三郎, p.34

中國의 思想文化의 骨格을 再形成하게 되면서부터 上古의 天神上帝는 名目上 儒家의 天命, 墨家의 天志, 道家의 天道 等 人間의 道理, 事物의 根源, 終局目的, 普遍性的 根據라는 形態로 그 命脈을 維持하게 된다.

孔子 自身은 述而不作이라 하여 古人의 道를 敘述할 뿐 創作을 아니하며 옛을 좋아하는 點을 저 老彭에게 比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²⁹⁾ 나면서부터 道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이를 재빨리 求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³⁰⁾ 自身은 古賢의 思想을 그대로 傳하는 것 뿐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事實 孔子는 古賢의 思想을 그대로 傳한 것이 아니라 古代의 形而上學的 天意識을 現實的인 實踐倫理로 一大回轉시킨 張本人이며 그가 곧 向後 中國思想의 大宗을 이룬 儒家의 人間主義의 새 기틀을 마련하였다.³¹⁾

이렇게 古代의 天神이 人格神으로부터 非人格의 道로 移行된 後 中國人의 關心도 天에서 人間에게로 옮겨졌다. 儒家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儒家가 人間으로 하여금 絕對者(神)에 對한 屬從에서 벗어나 大地 위에 선 人間 그 自身의 價値를 높이 肯定하고 問題의 解決과 責任의 歸屬을 個個人間自身 위에다 두게 했다는 것이다.³²⁾

그런데 이러한 中國思想의 形而上에서 形而下에로의 轉移는 中國古來의 天命思想의 變貌에서 그 原型의 變遷過程을 엿볼 수 있다.

原來 天命은 漢族이 天帝를 至上神으로 崇拜하게 되었을 때 自然의 調和와 人間의 壽夭, 吉凶, 禍福, 禍가 天의 意志에 依하여 主管되며 그의 命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人格神의 意志, 或은 命命을 뜻한 말이다.

그런데 이 天命은 天에 對한 觀念이 進展됨에 따라 王朝變易과 結付된 政治的인 天命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即 예전의 天은 直接 天下의 일을 보살피던 것이 이제는 王者를 通하여 天下를 다스리게 한다는 觀念으로 發展한 것이다.³³⁾

그런데 여기서 아주 重要的 것은 이 政治的인 天命을 決定하는 主體가 天이 아니라 民衆이란 思想이다. 即 人心을 天心으로 보는 것이다.

大學傳文에 「殷나라가 民衆을 잃지 않았을 때는 上帝에게 能히 應對할 수 있었더니 殷을 거울 삼아 불지어다. 大命(天命) 保存해감이 쉽지 않나니 라고 하였다. 民衆을 얻으면 나라를

29) 論語 述而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30) 論語述而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31) 東洋思想(講)二卷, p.36~7 參照
32) 中庸(解義) 玄岩社, p.127
33) 詩經 大雅 大明編
維此文王 小心翼翼昭事上帝一
天監在下 有命既集一有命自天
命此文王 于周于京

얻게 되고 民衆을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됨을 말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³⁴⁾

여기서 말하는 것은 民心의 動向이 곧 天命이라는 뜻이며 天命을 받는 것은 바로 民衆의 마음을 얻는다는 意味가 된다. 이는 殷의 紂王이 民心을 아주 잃은 것이 곧 大命 即 天命을 잃은 것이고 民衆의 마음을 잃게 되면 나라도 잃게 된다는 - 人心 即 天心의 天命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政治的인 天命思想은 그 主權을 天神에게서 빼앗아 人間에게 讓移해 줌으로써 神의 絕對性이 벌써 흔들리기 始作한 것이다.

이렇게 뿌리로부터 흔들리기 始作한 神의 位置는 人性과 結付된 儒家의 倫理的인 天命思想에 依하여 完全히 格下되어 人格神으로서의 神의 모습은 完全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中庸 天人論에 저 有名한 「하늘이 命賦한 것이 性이요, 性에 따르는 것이 道요, 道를 따르는 것이 教다」라는 말이 나온다.³⁵⁾

여기 하늘이 命賦한 것이 性이란 것은 人間이 生來的으로 具有해 있는 本然의 性을 말함인데 森三樹三郎은 이를 人間 속에 內宿하는 「天」이라고 풀이하였다.³⁶⁾

이 말은 儒家의 天이 非人格化됨과 同時에 萬物 속에 內在하게 되었고 그 天이 人間 속에 內在하게 될 때 그것을 天性 或은 性이라고 이름짓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은 天人合一의 境地로 上昇하게 되고 神에게 救援을 哀乞할 必要가 없는 自主者의 位置를 確保하고 儒家는 神을 必要로 하지 않는 神없는 宗教로 發展하게 됐다.

이러한 倫理的인 天命思想은 必然的으로 孟子의 性善說을 낳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中國人의 世界觀에 構造的인 變革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神이 人間을 爲始한 萬物 속에 內在한다는 神, 人間, 自然을 連續線上에 두는 汎神論의 世界觀을 形成케 했다.

그런데 이 汎神論의 世界觀은 儒家 本來의 人間爲主의 價値觀 設定에 差跌을 가져오는 困境을 超來하게 된다.

바꾸어말해서 人이 自然의 延長이란 概念이 成立되면 그 價値判斷에서도 적은 것보다 큰 것이 값이 있고 無用한 것보다 有用한 것이 價値가 더 있음으로 老衰病弱하여 쓸모가 없는 者는 사람이라도 有用한 太馬보다 價値가 없다는 論理가 成立되어 唯人最貴의 儒家의 人間主義를 根本的으로 뒤엎어놓는 셈이 된다.

5. 結 論

中國의 天思想은 古代 中國人에게 있어서는 天神 또는 上帝라 불리어져 人格神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人間에게 普遍的으로 賦與된 宗教性으로부터 緣由된 것으로서 그들에게 神秘的 힘으로 나타나는 自然現像이나 漠然한 宇宙原理를 迷信의이며 物活論의 信仰으로 人格化하여 부른데 지나지 않았다.

後代 儒家들에 와서는 天은 그들의 現世主義的 倫理性을 띠게 되지만 天 自體가 스스로 人

34) 詩云「殷之末衷師 克配上帝 儀監于殷 峻命不易」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35) 中庸 天人論 天命之謂性
36) 中國思想 上 森三樹三郎, p.37

格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고 單純히 그들의 最大關心事였던 現世的 政治權力의 源泉을 擬人化한데 不過하였고 天은 그 後에 차츰 天子(王), 民心, 人性, 等으로 世俗化하다가 理 또는 自然原理로까지 非人格化 乃至 非倫理化하였고 마침내는 無神論的 理神論으로까지 轉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初期의 많은 說敎家들은 聖書의 하나님을 儒家의 天 또는 上帝와 同一時하여 聖書의 人格神의 能動的 啓示와 他律的 救贖行爲인 福音의 內容을 單純한 倫理的 善行에 依한 自律的 修養宗敎와 混頓하게하는 過誤를 犯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一部 說敎家들은 이를 分明히 識別하지 못한 感이 없지 않으며 또 一部 神學者들은 基督教의 土着化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過誤를 意圖的으로 犯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中國의 天思想에 나타난 人本主義的 理神論과 聖書에 啓示된 神本主義的 人格神과를 嚴히 區別하여야 하는 것은 儒學自體의 바른 理解를 爲해서나 基督教 信仰의 바른 把握을 爲하여 함께 要請되는 일이다.

* 參考圖書 *

- 1) 大學·中庸 玄岩社
- 2) 詩經 玄岩社
- 3) 書經 玄岩社
- 4) 論語 玄岩社
- 5) 周易 玄岩社
- 6) 孟子 玄岩社
- 7) 宇野精一 中村元 玉城康四郎 東洋思想Ⅱ(講), 東京大學出版會
- 8) 東洋思想(講)Ⅲ卷 東京大學出版社
- 9) 宇野哲人 支那哲學史, 大同館書店
- 10) 馮友蘭, 中國哲學史, 鄭仁在譯, 螢雪出版社
- 11) 森三樹三郎, 中國思想史 上下卷, 策三文明社
- 12) 小柳司氣太, 東洋思想의 研究, 森北書店
- 13) 服部宇之吉, 儒敎倫理概論, 富山房
- 14) 佐藤嘉祐, 儒敎倫理의 濼源의 研究, 明德出版社
- 15) 安岡正篤, 東洋人物 と 思想, 明德出版社
- 16) 氣의 思想, 小野沢精一 福永光司 山井湧 編, 東京大學出版會
- 17) 具塚茂樹, 諸子百家, 岩波書店
- 18) 具塚茂樹, 孔子, 岩波書店
- 19) 金谷 洽, 孟子, 岩波書店
- 20) 大濱 皓, 老子哲學, 勁草書房
- 21) 大濱 皓, 莊子의 哲學, 勁草書房
- 22) 原田憲雄, 莊子傳, 木耳社
- 23) 柳正基, 東洋思想體係, 大韓公報社
- 24) 安田二郎, 中國 近世思想研究, 筑摩書房
- 25) 市川安司, 朱子一學問とその展開, 評論社
- 26) 山田慶兒, 朱子의 自然學, 岩波書店
- 27) 市川安司, 程伊川哲學의 研究, 東京大學出版社
- 28) 金彥基, 中國古代史綱, 普文閣
- 29) 世界文化史 Ⅱ, Ⅲ卷 學園社
- 30) 中國史(說話) Ⅱ, Ⅲ卷, 新太陽社
- 31) John Koller, Oriental Philosophy,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 32) Charles Moor, (Ed.) *The Chinese Mi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 33) Theophile J. Meek, *Hebrew Origins*, Harper Row Publishers
- 34) 哲學事典, 平凡社
- 35) 聖經, King James 譯
- 36) 李氏樹譯, 明心寶鑑 新釋, 乙西文化社

SUN MYUNG MOON AND THE UNIFICATION CHURCH

ALVIN SNELLER*

◇ CONTENTS ◇

- Introduction
- Background
- Doctrine
 - Introduction
 - Authority
 - God
 - Creation
 - Man and the Fall
 - Christ and Trinity
 - Resurrection
 - Soteriology
 - The Second Advent
- Training the Laity

INTRODUCTION

“Seven hundred couples married in a mass wedding in Seoul.” “Little Angels sing at anti-communist rallies.” “Concerned parents seek the help of Ted Patrick to rescue their children from the Moonies.” These could be topics of the news media in Korea or the United States. Who are the Moonies? Who is Sun Myung Moon? What do they believe? What should the evangelical Christian know about them in order to witness to them, as well as save his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his church from their clutches?

* 교수